

권오경 연구원

요약

LIMRA는 미국 사망보험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위축된 후 2022년부터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대면채널 비중이 높은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021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판매가 용이한 정기보험은 2020년과 2021년 수입보험료 성장이 예상됨. LIMRA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사망보험 판매 감소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감소폭은 비슷한 반면 회복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함

- 미국 생명보험 연구기관 LIMRA는 미국 사망보험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LIMRA는 미국 사망보험 판매가 2020년 최대 -7%까지 감소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상품별로 종신보험 판매는 2020~2021년 연속 감소 후 2022년 회복 및 소폭 증가하고, 정기보험은 반대로 2020~2021년까지 증가 후 2022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유니버설보험은 전반적으로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1년 이후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은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보임
 - 개인 사망보험시장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과 함께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 여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출시(2021년 중반으로 예상),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함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및 사회봉쇄가 이루어지며 대면채널 위주로 판매되던 사망보험 판매가 타격을 받고 있음
 - 사망보험 판매 회복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출시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종신보험은 대부분 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봉쇄조치에 따른 실적악화가 불가피하며 신규 판매는 2022년이 돼서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종신보험 판매는 2020년 겨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0년 1~3%, 2021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백신 및 치료제 출시로 코로나19가 확산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회사들은 종신보험의 비대면채널 판매를 확대하고, 대면판매 인센티브 및 간편심사 확대와 같은 실적개선

1) Maureen Shaughnessy and Karen Terry(2020. 10. 23),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Forecast: COVID-19 and Beyond 2020 - 2022", LIMRA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임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기보험은 팬데믹에 따른 사망보장 니즈 증가와 종신보험의 대체상품으로 부각되면서 2020~2021년 종신보험과 달리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기보험은 비교적 저렴하고 상품구조가 간단하여 종신보험보다 온라인 판매가 쉬운 상품으로, 팬데믹으로 사망보장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신보험을 대체하면서 2020년 3~7% 성장한 후 코로나19 백신 출시 이전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출시 이후에는 사망보장 니즈가 둔화되고 종신보험 판매가 회복되면서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유니버설보험은 대면채널 위주로 판매되고 의료검사에 준하는 심사요건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상품이며, 유니버설 상품 중에서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은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보임
 - 확정금리형(Fixed) 상품은 코로나19와 저금리 영향으로 신규판매가 2020년 21~25%²⁾, 2021년 8~12% 감소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2022년까지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인덱스형(Indexed) 상품³⁾은 코로나19 이후 신규판매가 2020년 3~7% 감소하고, 코로나19 백신 출시 이후 2022년에는 3~7%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LIMRA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사망보험 판매 감소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감소폭은 비슷한 반면 회복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함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사망보험 판매는 2008년 -6%, 2009년 -14%까지 하락하였으며, 이와 비교할 때 2020년 사망보험 판매 감소폭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됨
 - 한편 코로나19 백신 출시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사망보장 니즈가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함

2) 확정금리형 유니버설 상품은 2017년 생명표 개정에 따라 일부 상품단종, 보험료 인상과 함께 신상품 판매경쟁으로 2019년 보험료 실적이 부풀려진 경향이 있어 2020년 실적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보임
3)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보험회사는 인덱스형 유니버설 상품을 무보증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수익성 해지를 위한 이자율 요소로 인해 인덱스형 유니버설 상품의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음